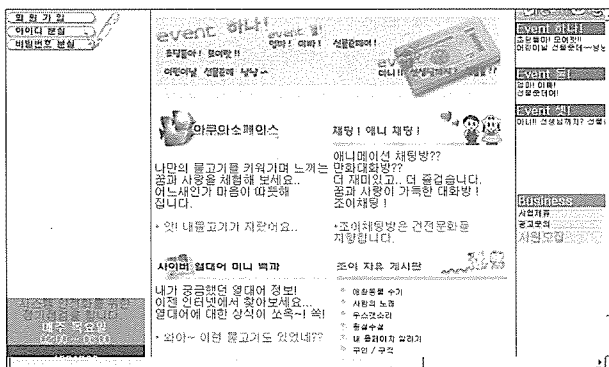


웹브라우저 없이 인터넷 향해 '넷스테이션' 출항

인터넷 향해 수단인 웹브라우저 없이도 인터넷이 가능해졌다. (주)넥스터정보기술(대표 전대식)은 인터넷 접속, 검색, 메일전송, 인터넷무선통신, 화상채팅, 전자상거래, 엔터테인먼트 등 인터넷상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웹브라우저 없이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인 '넷스테이션'을 개발했다. 현재 회원은 3만명. 막대모양의 툴바(Tool Bar) 형태로 제공되는 이 인터넷 서비스는 (주)넥스터정보기술의 홈페이지(www.nexter.com)에 접속,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웹브라우저의 경우 정보 제공이 주 기능이기 때문에 통신에는 적합하지 않아 이메일전송, 채팅 등에는 속도가 느리다. 하지만 넷스테이션은 'http' 프로토콜의 단점을 보완,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이를 즐길 수 있다. 또 웹브라우저를 실행하면 모니터 전체를 다 가려서 다른 작업이 불가능했지만 넷스테이션 프로그램 하에서는 채팅중에도 파일을 교환하는 등 여러 작업을 한 화면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또 정보검색 외에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는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툴바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일일이 서비스를 찾아들어가는 불편이 줄어든다.

세계 최초 사이버수족관 개발



키싱구라미, 엔젤로피시, 구피 등 관상용 물고기를 사이버상에서 실제처럼 기를 수 있는 사이트가 개설됐다. 정보통신부 주최 제1회 벤처창업경진대회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 부분 우수상을 수상한 벤처기업 (주)조이인터랙티브(대

표 육태수)는 인터넷에서 물고기를 기르는 사이버 수족관 '아쿠아스페이스' (www.aquaspace.co.kr)를 개설했다. 아쿠아스페이스는 온라인 입체 육성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수족관에 응용한 것으로 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 확보를 위해 특허를 출원했다.

구인, 구직도 인터넷 경매를 통해 할 수 있게 됐다.

인력정보 제공 사이트인 '캐리어씨포트(www.scout.co.kr)'는 구직자들과 채용기업을 경매방식으로 연결해 필요한 인재를 실시간 스카우트할 수 있는 '인터넷 취업경매' 서비스를 시작했다.

캐리어씨포트의 '인터넷 취업경매'는 다양한 분야의 구직자들이 자신의 소개와 이력사항, 희망급여, 근무조건 등을 올려놓고 기업에서는 검색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게 된다.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구직자들이 제시한 희망사항의 수용 여부와 기타 다른 근무조건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캐리어씨포트 관계자는 "이러한 취업경매를 통해 기업은 스카우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구직자들도 자신의 입맛에 맞는 기업을 선택해 취업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캐리어씨포트는 90년 설립된 인력정보 서비스 업체로 98년 10월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세계 6대 교육기관 e-도서관 공동 창설

세계적으로 저명한 교육기관인 영국의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 런던정경대학(LSE), 영국국립도서관, 미국의 컬럼비아대학, 국립스미소니언자연사박물관, 뉴욕 도서관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패덤닷컴' (fathom.com)이라는 온라인 도서관을 창설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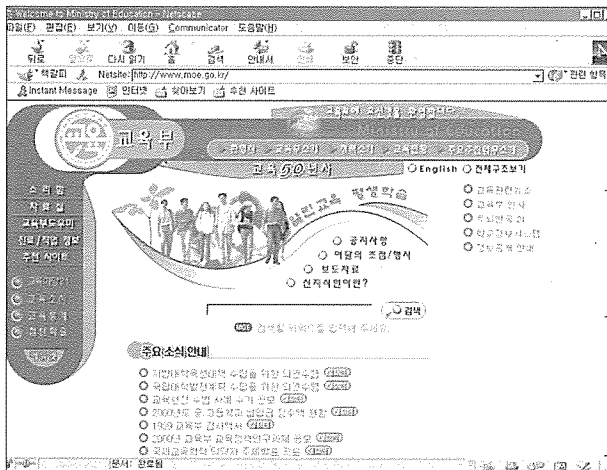
이 신문은 이들 교육기관이 온라인을 통해 교육과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관간의 혁신적 협력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까지 약 8천만달러(9백60억원)를 출자해 온라인 도서관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패덤닷컴을 통해 지식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학사위원회가 검토한 내용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패덤닷컴의 최고경영자인 앤 키르슈너박사는 “일반적으로 현실세계에서 무료인 것들은 인터넷에서도 무료”라며 “다만 희귀한 자료들의 경우는 소액의 사용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키르슈너박사는 “우리는 시간과 경제 사정과 지리적 거리 등으로 배움의 길을 미룬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불길을 당기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TV로 하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 곧 등장

TV로 하는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곧 제공될 전망이다. 인터넷TV 서비스업체인 (주)인터넷TV네트웍스는 소프트웨어 업체인 (주)소프트포럼과 인터넷 뱅킹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인터넷TV 셋탑박스는 TV에 연결, 컴퓨터 없이도 TV에서 리모컨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가전기기로 인터넷TV 뱅킹 서비스가 실현되면 가정에서도 TV를 통해 간단한 클릭만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교육정보도 인터넷으로



교육부는 전국에 흩어져있는 여러 가지 교육 관련 정보나 자료가 있는 곳을 인터넷으로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교육정보 소재 안내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서비스는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육정보화 사업의 하나로 개발된 이 서비스는 교육부를 비롯해서 각 시도 교육청과 대학 등이 갖고 있는 단행본과 연

구보고서 등 교육자료 3천여점과, 지금까지 발간된 초·중·고교 교과서 1만3천8백여점의 소재를 안내해준다. 또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해당 기관에 직접 연결도 가능하며 해외 교육 정보도 검색할 수 있다.

국내 첫 3차원 포토 메일링 서비스 개발

(주)나이스클릭닷컴(대표 이희균)은 자신의 얼굴을 촬영한 뒤 다양한 배경그림과 함께 문자와 음악 등을 곁들여 메일로 전송하는 포토 메일링 서비스인 ‘캐치미(Catch me)’를 개발했다. 이 캐치미서비스는 그동안 값비싼 방송용 장비로만 가능했던 사진의 배경을 없애고 푸른빛 스크린에 필요한 그림을 합성하는 블루 스크리닝(Blue screening) 기법을 개인용 컴퓨터 환경에서도 구현할 수 있게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또 이 캐치미서비스는 포토메일링 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용 전화 등에도 원하는 배경화면을 바탕삼아 자신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등 부가적인 용도로도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하반기부터 각종 공과금 인터넷으로 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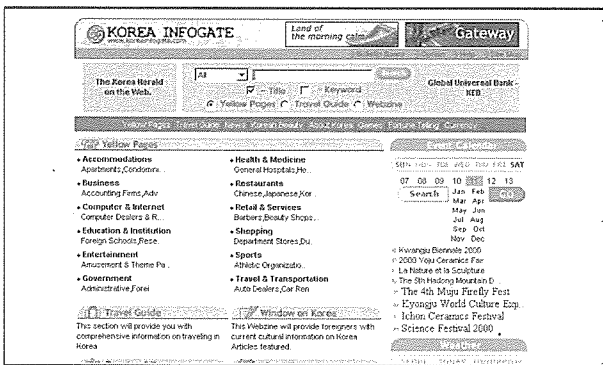
올 하반기부터 각종 세금, 보험료, 연금, 전기·전화료, 이동통신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인터넷을 통해 고지받고 지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와 신한은행, 주택은행 등 3개 금융기관과 미래산업, 소프트포럼, 조이닷컴 등 인터넷 전문업체들은 ‘고지서 전자청구 및 지불’(EBPP)사업을 위한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참여업체들은 공동출자방식으로 초기 자본금 20억~30억원 규모의 법인설립을 마치고 3/4분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설 합작회사가 제공하는 가칭 ‘네오빌’(NeoBill)이란 이름의 공과금 고지서 청구 및 지불서비스는 통합고지서 제작 및 발송, 요금수납, 자동이체 등 공과금의 고지에서부터 수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도록 하는 것.

관련 금융기관들은 네오빌서비스를 위해 은행결제 및 자동이체 시스템을 제공하고 소프트포럼은 보안 및 인증, 지

블시스템 기술을 제공하게 된다. 또 조이닷컴은 개인재무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이를 은행의 뱅킹시스템과 연계시키는 작업을 맡게 되며 미래산업은 마케팅 및 포털사이트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

외국인을 위한 영문 지리정보사이트 개설



우리나라의 지리정보를 영문으로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가 개설돼 외국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한국통신(사장 이계철)은 사내 벤처인 한국통신정보기술(주)과 공동으로 외국인을 위한 영문 지리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리아 인포게이트' (www.koreainfolgate.com)를 개설했다.

무료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등장

음성전화에 이어 초고속 인터넷의 공짜시대가 열린다. 인터넷벤처기업인 (주)미르메(www.mirme.net 대표 김진태)는 지엔지텔레콤, 라이코스코리아, 서울시스템, 엘엔아이소프트, 한국후지츠 등 5개사와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고 무료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시작한다. 무료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등장으로 월 2만~3만원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 기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에게 상당한 충격이 될 전망이다. 미르메 등이 제공하는 무료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기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업체들과 달리 ADSL(비대칭디지털 가입자회선), 케이블TV망, ISDN(중합정보통신망), 무선 및 위성망 등 가입자의 통신

환경에 따라 다양한 회선을 이용, 가입비 7만~10만원과 LAN(근거리통신망)카드 구입비 등만으로 가입자들에게 평생토록 무료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 서비스는 미르메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웹브라우저 '미르메 2000'을 통해 제공되는데 브라우저 상단에 마련된 광고창에 기업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수익을 올리는 대신 가입자들에게는 모든 서비스들이 무료로 제공된다.

이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 회선은 지엔지텔레콤이, 각종 콘텐츠는 라이코스코리아와 엘엔아이소프트, 네트워크장비와 하드웨어는 서울시스템과 한국후지츠가 각각 제공한다. 미르메 김진태사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나 넷스케이프와 전혀 다른 새로운 웹브라우저 '미르메2000'을 개발해 광고주를 끌어들이 수 있는 수익모델을 개발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컨소시엄 참여업체와 함께 초고속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공간서 나무와 꽃심는 사이트 등장

인터넷 공간에서도 나무와 꽃을 키울 수 있는 사이트(http://www.dreamseed.co.kr)가 등장했다.

(주)아이에스피(대표 최근구)는 꽃과 나무를 키우며 꿈을 키운다는 취지 아래 웹상에서 씨앗을 선택해 키워서 함께 제공되는 글을 통해 보낼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같은 씨앗을 심은 사람과 커뮤니티를 통해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자신이 사이버상에서 키운 꽃을 친구나 애인, 부모님께 예쁜 카드로도 보낼 수 있다.

AOL도 독점 픽소

세계 최대 온라인 서비스 업체인 아메리카 온라인(AOL)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인터넷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는 혐의로 한 군소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제소당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뉴턴에 본사를 둔 갤럭시 인터넷 서비스가 지난해 10월 출시된 AOL 5.0이 다른 업체의 인터넷 서비스(ISP) 이용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며 보스턴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AOL은 현재

2천2백만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중 1백80만명은 다른 ISP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 깔러시는 다른 AOL 경쟁업체들에게 소송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판촉은 인터넷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AOL의 노력으로 간주되나 경쟁업체의 서비스 접근을 막는 AOL 5.0의 제품 특성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사업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AOL은 이에 대해 일절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AOL은 4일 5.0버전 이용자에게 초고속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 AOL 플러스를 출시했다.

인터넷 민간방범사이트 개설, 현상금 지급 중계



사이버상에서 범죄 수배자 신고를 하고 현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인터넷범죄 예방사이트가 개설된다.

인터넷 전문업체인 (주)트리즈는 4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인터넷을 통해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사이버 네트워크 '크림스타퍼스' (www.crimestoppers.co.kr)를 개설했다. '크림스타퍼스'는 수배자의 사진과 현상금 등 범죄해결을 위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의 익명 신고와 제보를 받아 경찰에 중개하고 범인 검거시 현상금까지 지급받도록 한 것이 특징.

이 사이트는 지난 76년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시작돼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 1천여개의 지역망을 구축하고 있는데 지난 98년 영국에서는 5천2백여명의 범죄자를 검거하고 제보 사건의 95%가 유죄판결을 받는 등 범죄해결에 큰 기여를 했다. 이밖에 사이버경찰과 연결된 '범죄

상담코너', 경찰대 출신이 꾸미는 '경찰상식', 모범 경찰관을 소개하는 '이달의 포돌이', 외국범죄를 조명하는 '세계의 범죄조직', 각종 추리게임 등을 담고 있다.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 시작

호적등·초본이나 토지대장 등 각종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신청, 원하는 장소에서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데이콤은 시스템통합업체인 (주)NC와 공동 개발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이용해 서울의 전 구청을 대상으로 온라인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발급과 배달을 신청하면 택배서비스를 이용, 다음날까지 원하는 장소로 배달해주는 것.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울시 민원배달센터(www.ecourt.co.kr)나 서울시청 홈페이지(www.metro.seoul.kr)에 접속, 필요한 민원서류를 선택하고 간단한 인적사항과 배달장소를 입력한 뒤 데이콤이 발행하는 선불카드인 '사이버패스'로 인지대와 배달료를 결제하면 된다. 사이버패스는 1원에서부터 1백만원까지 인터넷 결제가 가능한 전자화폐로 사이버패스 홈페이지(www.cyberpass.com)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거주지나 배달장소에 관계없이 직접 구청에서 신청할 때와 같은 요금이 적용된다. 예컨대 호적등본을 땐 경우 인지대 6백원과 배달료 5백원 등 1천1백원이 든다.

한통-KBS, 인터넷방송 전문업체 '크레지오 닷컴' 설립

한국통신(사장 이계철)과 KBS(사장 박권상)는 공동출자를 통해 인터넷방송 전문업체 '크레지오 닷컴' (www.crezio.com)을 설립했다. 크레지오는 뉴스, 드라마, 영화, 음악,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공중파 방송과 달리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크레지오를 시청하려면 크레지오 홈페이지나 한국통신(www.kt.co.kr)과 KBS홈페이지(www.kbs.co.kr) 또는 코넷(www.kornet.net), 한미르(www.hanmir.com)에 접속하면 된다. ⑤7